

천주교 세종로성당

원죄없으신성모성심 성모순례지

0316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9
(사무실: 733. 1471/팩스: 732. 3354)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 8)



세종로성당 유튜브
<http://www.sejonglo.org>

주 일 미 사	오전 6:00, 9:00(중고등), 10:30(교중), 12:00, 오후 6:00(청년)	평 일	월~토 오전 6:00	주 임 : 박동균 도나도 신부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오후 3:30(초등), 오후 6:00	미 사	화~금 오후 7:30	부 주 임 : 전창훈 시몬 신부
예수성심 신심미사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7:30 (미사 후 성체강복)			수녀원 : 장 마리보나 수녀, 안 마리아야 수녀
성모 신심미사	매일 첫째 토요일 오전 6:00			유치원 : 임 광순이사벨라 수녀 733.1475
				사목회장 : 한근영 루가
				연령회장 : 양을석 바오로 010.8739.3490

● 성모성월 묵주기도

5월은 성모성월로,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금요일 저녁미사 후, 대성전

● 주임신부님 사제서품 40주년

5/5(주일)은 박동균 도나도 주임신부님께서 사제서품을 받으신 지
40주년이 됩니다. 신부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영성체 • 사제를 위한 기도 • 묵주 기도
- 주모경 • 화살기도 • 희생

※ 영적예물을 바치신 분들은 사무실 앞 예물함에 넣어 주시고,
물적예물을 가져오신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수)은 봉성체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구역장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와인파티

• 일시, 장소 : 4/28(주일) 청년미사 후, 소강당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5월 신심미사

- 예수성심 신심미사 : 5/2(목) 오후 7시 30분
- 성모 신심미사 : 5/4(토) 오전 6시
- 5/4(토)은 가정주일로 어린이미사가 없습니다.

● '세종로 예술의 밤' 음악회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2,23)
• 일시, 장소 : 5/4(토) 오후 7시, 대성전
• 프로그램 : 진도복춤, 비올라 솔로-Tosti의 Preghiera(기도),
첼로 앙상블-Lorenc의 Ave Maria, 첼로 솔로-청산에 살리라,
한국무용 아리랑, 테너+앙상블 외

● 본당의 날

5/20(월)은 세종로성당 설립 78주년입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념미사 : 5/5(주일) 교중미사

● 5/11(토)은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의 밤

- 일시, 장소 : 5/11(토) 저녁미사 후, 대성전
- 준비물 : 초 봉헌(컵초 본당 판매), 건축헌금 봉헌

● 청년 성가대 모집

청년미사에 전례 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문의 : 김효빈 로셀리나 010-7664-9996

● 모임 안내

단 체	일 시	장 소
남성구역	4/28(주일) 09:30	소강당
성모회	5/4(토) 11:00	대성전
자비의모후Cu.	5/7(화) 10:00	소강당
여성구역장	5/8(수) 10:00	소강당
여성구역반장	5/8(수) 11:00	소강당
여성구역월례교육	5/9(목) 14:00	혜화동성당

우리들의 정성 (4/15~21)

- 부활제4주일 (771명) 4,742,300원
- 성소주일 교구특별헌금 2,980,000원
- 교무금 (46세대) 5,130,000원
- 감사헌금 600,000원
- 변필옥 500,000 고금관 100,000
- 건축헌금 870,000원
- 민규원 300,000 김보라 50,000 이동구 300,000
- 고금관 100,000 이성재 100,000 익명 20,000
- 성소후원금 (3세대) 80,000원
- 총 합 계 14,402,300원

※ 교무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은행 124-04-112086

※ 건축헌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나은행 272-910032-68304



십자가와 포도나무

야곱은 우리 주님을 포도로 표현했습니다.(창세 49,11) 그리스도께서 포도처럼 나무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은 포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시고, 군사가 창으로 그분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요한19,34)으므로 포도이십니다. 물은 세례를 위한 것이고 피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우리를 씻어 주었고, 피는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암브로시우스)

하느님은 우리, 곧 교회를 경작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느님을 더 훌륭한 분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찬미이지 쟁기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경작하시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그분의 경작은 우리 마음에서 사악함의 씨앗을 모조리 없애고, 당신 말씀의 쟁기질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당신 계명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뿌리고, 경건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며 이 땅에서 일꾼으로 수고하던 바오로 사도는 일꾼의 보수로 만족할 뿐 자신에게 아무런 공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1코린3,6-7)(아우구스티누스)

포도송이를 시험하는 바람

진리의 자녀들은
“진리의 가지”(그리스도)에서 크게 자란다.
그들은 완전하게 되어
나라에 걸맞은 열매들이 되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가지’에도
꽃이 핀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죽은 열매들이 달려있다.
바람이 그들을 시험해

들포도 열매를 떨어뜨린다.
그분께 단단히 붙어 있어
성령께 관을 받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내려뜨려 주는 이 ‘가지’를
저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내려뜨려 주소서.
그들은 먹고 배가 불렀으면서도
그 가지를 모독했습니다.
저승의 아담에게까지
팔을 내려뜨려 준 그 가지를.
그는 아담을 들어 올려 그를 데리고
에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가지를 붙잡고
그 위에 앉아 위로 오르도록
가지를 내려뜨려 주신 분은 복되시도다.
그의 위대함을 붙들기를 마다하는
자의 나약함이
그 위대한 ‘가지’가 나약한 가지라고 우기니
이 일을 두고 실로 누가 옳지 않을 수 있으랴!
모든 임금을 이기고
온 세상에 그림자를 드리운 가지!
고난을 통하여 그 가지의 힘은 더욱 커진다.
그를 이집트의 포도나무(시편80,9)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누가 이 “진리의 가지”에 매달리지 않으랴.
그 가지는 참된 이들은 품고
거짓된 이들은 떨어뜨린다.
그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거워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미풍으로 그들을 시험한 것.
바람은 쭉그러진 것들은 흔들어 떨어뜨리고
단단한 것들은 무르익게 한다.(에프렐)